Acting in Good Faith: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February 8, 2024

Aloha MPC ‘Ohana,

The other night on her phone’s Hulu app, Nan was watching some kind of lawyer drama. I couldn’t see the pictures on her phone’s screen, but I was listening to the dialogue with one ear. And I learned a new legal term: “good faith.”

Apparently, to do something in “good faith” means that the doer of the thing in question did so believing that what they were doing was good and right, ethical and true. Or to put it another way, the person was basically trying to do their level best.

Now, knowing that very rudimentary definition of “good faith” of course hardly qualifies me to open up my own law practice, but it does strike me that anytime a group of people try to work together, some measure of “good faith” is needed.

For example, if I’m a quarterback on a football team, I have to trust that my receivers are going to act in “good faith” by trying their best to execute the play that’s been called, and I have to trust that the offensive line is going to act in “good faith” and at least try to protect the pocket. I also have to trust that the other team is going to act in “good faith” and stop trying to tackle me after a referee blows the whistle. And I have to trust that the referees themselves are going to act in “good faith” by impartially applying the rules of the game to both sides. Because without “good faith” of all these sorts, playing a game of football becomes next to impossible.

A similar principle applies to teams at work. Unless the members of the team believe they’re all acting in “good faith,” they won’t be able to trust each other and function cohesively as a team.

Likewise, in a democratic republic, unless all of those elected to serve in government operate in “good faith,” following the rule of the law and the Constitution, governing itself becomes dysfunctional and ultimately ceases to be possible.

And the same holds true among Jesus’ disciples. Which means that those of us who are followers of Jesus not only have to trust Him, we also need to trust one another – to trust that we’re all acting in “good faith,” trying to serve the Lord as faithfully and as truly as we can. Which prompts me to think about Jesus’ original twelve disciples.

Because anytime I really stop to think about it, I’m always struck by what an odd, unlikely, frankly “messy” assortment of people Jesus called to be His first disciples. For example, He called a tax collector named Matthew, and He called a man whose moniker was Simon “the Zealot.” That was like putting fire and ice

together – because tax collectors worked for the Roman Empire, while the Zealots were violent insurrectionists who wanted to kill the Romans and anyone who collaborated with them (such as tax collectors). So, for Jesus to deliberately put a tax collector and a Zealot on His team seems, at first, like a very odd choice. Really, it seems like a recipe for conflict and dysfunction. Because, after all, how could two men like Matthew the tax collector and Simon the Zealot ever work together?

It seems to me that Simon and Matthew could only have done it if they somehow learned to trust that, different as they were, they both were nonetheless there, each trying to follow Jesus as best as they could, in "good faith." And for men like Matthew and Simon, as radically opposed to each other their two groups of origin were, the only way for that to happen probably involved a miracle.

Because that really is the miracle of "good faith." No matter how differently any two (or more) people may see things, if they can start from a foundational belief that "we're all here operating in good faith," then teamwork starts to become possible. And slowly teamwork can grow into mutual respect. Mutual respect in turn can grow into friendship. And friendship can grow (with time and grace) into brotherly love.

I can't help but think that maybe one of the reasons that Jesus chose the widely diverse and different kinds of men that He did to be His disciples was because He knew that. And because He knew that, with faith in Him and with "good faith" in each other, these twelve flawed, ordinary men could change the world. Matthew, Simon, and the other original disciples certainly did do that. And I can't help but think that their example tells us that, with faith in the Lord and with good faith in each other, we still can too.

Me ke aloha,
Pastor Ron

선의로 행동:
2024년 2월 8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지난번 밤, Nan은 휴대전화의 훌루 앱에서 일종의 변호사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서 사진을 볼 수 없었지만 한쪽 귀로 대화를 듣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의'라는 새로운 법률 용어를 배웠습니다.
분명히, "선의"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의 일을 행한 사람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선하고 옳으며 윤리적이고 진실하다고 믿으며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의"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정의를 알면 나 자신의 법률 업무를 개시할 자격이 거의 없지만 일단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려고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선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합니다. .
예를 들어, 내가 미식축구 팀의 쿼터백이라면 내 리시버가 요청된 플레이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선의"로 행동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며, 공격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라인은 "선의"로 행동하고 최소한 주머니를 보호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상대 팀이 "선의"로 행동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고, 심판이 휘슬을 불면 나에게 태클을 시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들 자신이 경기 규칙을 양쪽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함으로써 "선의"로 행동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종류의 "선의"가 없으면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팀에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팀 구성원 모두가 "선의"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서로를 신뢰하고 팀으로서 응집력 있게 기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공화국에서는 정부에 선출된 모든 사람이 법과 헌법의 지배에 따라 '선의'로 활동하지 않으면 통치 자체가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신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선한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주님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는 나에게 예수님의 원래 열두 제자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 정말로 멈춰서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항상 예수께서 그의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있을 법하지 않으며, 솔직하게 "엉성한" 부류의 사람들인지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마태라는 세리를 부르셨고, 이름이 시몬인 사람을 "열심당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불과 얼음을 합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금 징수원은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한 반면, 열심당은 로마인과 그들과 협력한 모든 사람(예: 세금 징수원)을 죽이기를 원하는 폭력적인 반란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세리와 열심당원을 그의 팀에 두신 것은 처음에는 매우 이상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갈등과 기능 장애의 비결처럼 보입니다.
결국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 같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몬과 마태가 비록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선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시몬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두 출신 그룹이 서로 근본적으로 반대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기적과 관련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선의'**의** 기적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또는 그 이상)이 사물을 어떻게 다르게 보더라도 "우리는 모두 선의로 일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다면 팀워크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팀워크가 상호 존중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은 결국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은 (시간과 은혜에 따라) 형제애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매우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신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선한 믿음"**으로** 이 12명의 결점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시몬, 그리고 다른 최초의 제자들도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모범을 통해 우리도 주님을 믿는 신앙과 서로에 대한 선한 신앙이 있다면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알로하,
론 목사